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 개최

국제경쟁 '파편' · 한국경쟁 '성적표의 김민영' 대상 수상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5일 저녁 6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준동 집행위원장과 부문별 심사위원, 경쟁부문 감독과 배우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을 비롯해 CGV아트하우스가 지원하는 창작지원상과 배급지원상, OTT 왓치가 주목한 장·단편, 진도터스가 후원하는 다큐멘터리상,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PAC)에서 시상하는 넷팩상, 그리고 올해 신설한 J비전상 등 20여 개 부문의 수상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시상식에서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축제로서의 영화제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 같이 모여 영화를 이야기하는 기회는 소중하다고 믿는다"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나는 경험이 다음 영화를 만드는 데 훌륭한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경쟁 대상은 나탈리아 가리살테의 <파편>에 돌아갔다. 아르헨티나의 한 군수공장에서 1995년 일어난 폭발 사건을 소재로 한 <파편>은 당시 열두 살이던 감독이 기록한 영상에서 시작한 다큐멘터리다. 작품상 또한 다큐멘터리가 수상했다. 마르타 포피오다 감독이 연출한 <저항의 풍경>은 아우슈비츠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끈 지도이자 반파시스트 운동가인 '소녀'의 얼굴을 담고 있다. <파편>과 <저항의 풍경>이 여성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인 반면,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친구들과 이방인들>은 블랙 코미디 장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임스 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밀레니얼 세대의 눈높이로 바라본 '현대 호주의 초상'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다.

한국경쟁 대상은 이재은, 임지선 감독이 공동 연출한 <성적표의 김민영>이 수상했다. 졸업과 함께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교고 단편의 모습을 담은 <성적표의 김민영>은 인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했다.

물의 내면을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펼쳐 보이는 독특한 어법을 지닌 영화다.

한편 배우상은 <낮아웃>의 정재광,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승연에게 돌아갔다. 두 배우가 연기한 '광호'와 '진아' 모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인데, 두 배우 모두 이를 표정과 눈빛, 몸짓의 언어로 완벽히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규리 감독의 <너에게 가는 길>은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심사위원 특별인급을 받았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을 소재로, 연분홍치마에서 제작한 <너에게 가는 길>에 대해 전주국제영화제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게 두지 않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존중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했다.

한국단편경쟁은 총 998편의 출품작 중 25편이 본선 심사에 올랐고, 그중 대상은 최민영 감독의 <오토바이와 햄버거>가 차지했다. 감독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부부의 일상을 담은 <나랑 아니면>의 박재현 감독이 받았으며, 심사위원특별상은 이택 감독의 <불모지>와 노경무 감독의 <파란거인>이 가져갔다.

한편, CGV아트하우스가 수여하는 창작지원상은 이정관 감독의 <낮아웃>, 배급지원상

은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수상했다. CGV아트하우스 측은 <낮아웃>에 대해 "후회와 좌절이 거듭되더라도 아직 '낮아웃' 이기에 희망이 있고, 또 삶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섬세하게 연출한 작품"이라 평했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서툰 현대인의 이야기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단절된 현실에서 많은 관객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영화"라 설명하며 선정의 변을 전했다. OTT 왓치는 왓치가 주목한 장·단편을 각각 1편, 5편 선정했다. 시의성과 독창성, 대중성과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국내 신예 감독들의 배출과 성장을 돕는 취지로 제정한 이 상에는 장편 <낮아웃>과 단편 <불모지> <마리와 나> <조은길 감독>, <마리아와 비운세> <송예찬 감독>, <역량향상교육> <김정범 감독>, <오토바이와 햄버거>가 뽑혔다. 전북과 전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J비전상은 한국단편경쟁작 중 하나인 <스승의 날> <이지향 감독>과 코리안시네마 부문 <연인> <허건 감독>이 받았다. 여기 더해 넷팩상은 '베이스'라는 이름의 50년 된 재즈 카페의 현재와 과거를 조명한 호시노 데쓰야 감독의 다큐멘터리 <재즈 카페 베이스>가 받았다. /양은경 기자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매주 열린다

남원시립국악단, 남원창극 '열녀춘향 수절가' 5~9월까지 토요일 공연

남원시립국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1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남원창극 '열녀춘향 수절가'를 펼친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지역의 수려한 한옥경관을 활용해 펼쳐지는 공연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창작창극으로 제작해 남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관광객에게 지역 내 우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펼쳐지는 '열녀춘향 수절가'는 관소리 춘향가의 탄생지인 남원에서 그 탄생이 배경을 여러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한다.

시작은 남원의 늪은기생 청향과 운봉의 소리꾼 송선달과의 우연한 만남 과정에서 청향아씨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듣고 이에 크게 감흥, 춘향가의 가사 및 소리를 완성해 나간다는 상상력으로 춘향 이야기를 풀어간다.

중국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기존 춘향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춘향가의 주요 눈대목인 사랑가, 이별가, 십장가, 상봉막, 여사출도 등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 관소리를 백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그동안 남원시립국악단은 춘향가, 흥부가, 정유재란 등 남원의 문화역사자원을 소재로한 독특한 공연양식 개발 및 창극공연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남원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번작품은 남원시립국악단 황의성 부단장의 기획과 극본



에 사성구 작가, 각색과 연출에 오진욱, 소리 지도에 이난초 명창, 음악감독 및 지휘에 김신, 안무에 박기람 선생이 참여했다. 한편 남원시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유무형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전통예술을 특화한 남원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광한투어 주변 한옥자원들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예술 성평등네트워크, 주민·문화예술인 대상

전북문화예술 성평등네트워크는 10일부터 21일까지 2021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 다리미'에 참여할 주민·문화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 및 단체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대학교부설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지배배로 지난 4월 29일 전북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 다리미'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연극, 문학, 시각, 영화 콘텐츠를 보고 비평문을 작성하는 워크숍 과정이다.

이는 젠더 감수성이 있고 문화예술비평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문화예술인이 주요대상자다.

성평등 예술비평학교는 6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0회차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로 접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가 선정된다.

이 워크숍 과정에서 작성된 비평문은 향후 자료집으로 제작하고, 전북권 5개 문화재단 간 행물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수료자들의 지속적인 문화예술비평활동을 위해 후속 멘토링이 지원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재단 누리집(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www.tc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의 '판소리마당-소리 판'

5월 매주 토요일 예음헌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판소리 다섯바탕의 완창무대인 '판소리마당-소리 판'을 5월 매주 토요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개최한다.

이번 완창 무대에 출연할 소리꾼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68명이 접수, 중견명창부터 신예 소리꾼에 이르기까지 10명을 선발했으며, 5월

공연은 지난 1일 류창선의 흥보가에 이어 8일 장문희의 심청가, 15일 강길원의 적벽가, 22일 김세미의 수궁가, 29일 김윤희의 춘향가가 펼쳐진다.

15일에 만나는 강길원 명창은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단원으로, 이날 공연될 박봉술계 적벽가'는 남자들의 이야기로 대마디 대장단의 남성적인 창법이 특징이다.

22일의 김세미 명창은 전북도립국악원 창극

단 지도단원이자 사)추담재판소리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수궁가'는 인간사를 여러 풍물의 눈을 빌려 묘사한 판소리로 해학과 풍자의 맛을 제대로 전할 예정이다.

29일은 김윤희 명창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판소리 작창과 실연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주역으로, 어려서부터 고성우항 명창에게 판소리를 학습하며 다져온 목으로 판소리 춘향가 계보를 잇는 명창으로 거듭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관람은 객석 띄어앉기로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